

## 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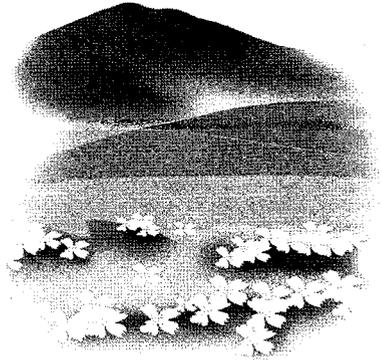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상

## 민주화의 샘물

뿌리지 않아도 때만 되면  
새싹들은 솟구쳐 오르고  
김 메고 가꾸지 않아도  
계절이 다가서면  
들풀들은 본래의 제 모습대로  
하나의 꽃등불이 되고  
향기를 품은 꽃 별들이 됩니다

보는 이 없어도 들풀들은 저마다  
매무새 다듬기에 분주하고  
오는 이 없어도 들꽃들은  
앞 다투어 귀여움 넘치는 표정되려  
호들갑입니다  
쉽 없이 소곤대지만  
한마디의 험구도 입에 담지는 않고

계속 흔들리는 몸짓이지만  
옆에 있는 작은 들꽃  
웃듯 한 번 스치지 않습니다



키 크고 볼 품 없는 개망초 꽃들은  
차렷 자세로 무리지어 서서  
성미 급한 산돼지 형제들의  
엇박자 행진을 막고  
양중맞은 개불알꽃들도  
엄마줄기 무등을 타고 앉아  
두리번거리며  
배고픈 나비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개울가 구렁에는 키 작은 클로버 덩불이  
눈부신 초록 양탄자로 펼쳐져  
맑은 물안개를 머금고 사뿐히 다가서는  
깃털 같은 하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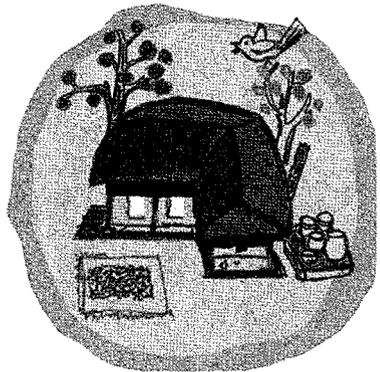
무질서 한 것처럼 어우러졌지만  
더불어 살기 때문에  
다툼을 모르고  
불규칙 한 것처럼 자라고 피어나지만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별판의 들풀 마을은

항상 푸르고 건강 합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제 할 일을 다하는  
민주화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치며  
흐르기 때문입니다.

## 기둥

지붕 없는 집, 아파트에는  
기둥도 들보도 서까래도 없습니다  
빈틈없이 막아선 벽이 혼자서  
열고 닫고  
채우고 비우고  
처음부터 금 그어진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단절의 냉기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지붕 있는 집, 고향집에는  
기둥과 서까래와 대들보가  
햇병아리의 날개 짓 같은  
모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심점으로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보내고 맞아 드리며  
뜨거운 체온을 지닌  
큰 등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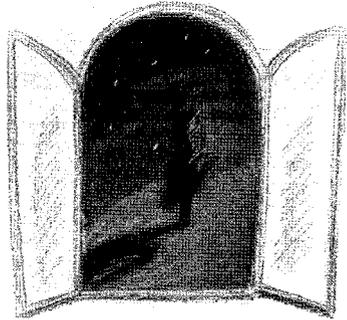
변함없이 열어주고 이어주고  
보듬어주기 위하여  
기둥은 산맥 같은 두 어깨로  
큰 지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 아버지

아버지  
어젯밤 늦은 봄비에  
꽃밭의 수수꽃다리 꽃이  
선잠깨고 일어나  
줄기와 가지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날마다 일터로 가기 위해  
꼭두새벽에 받으시는  
아버지의 밥상 위에

고봉으로 올려진  
하얀 밥사발처럼  
소복 합니다  
새벽밥 한 그릇을 비워야  
한나절을 견딘다며  
내 옷깃을 끌어당겨  
밥상 앞에 앉히고  
몇 술 뜨게 하시며  
엄마 몰래 만 원 한 장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 주신  
아버지



오늘 아침은  
함께 현관문을 나서다  
아버지의 목덜미에 소복하게 자란  
흰 머리칼을 보고  
하루 종일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 달동네엔 해도 있다.

달이 가까이에 있다고 달동네란다.  
 달빛은 밤마다 환하게 토막을 비춘다.  
 나무며 슬레이트로 열기설기 이어놓은 지붕 틈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어간다.

사람들은 그 달빛으로 꿈을 꾸다.  
 지쳐 쿡아떨어진 사람들의 꿈이 된다.  
 다음날 아침이면 기억나지 않을 꿈이 된다.

달이 가까운 만큼  
 해도 가깝지만 해동네는 아니란다.  
 해가 뜨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모두들 집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채 피로를 씻지도 못한 몸을 일으켜

눈부신 햇빛을 손으로 가리고 집을 나선다.

1년 전처럼, 5년 전처럼, 10년 전처럼.

또 그 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든

달동네 언덕길에는 매일 땀이 얼룩진다.

사람들의 고달픈 일과가 새겨진다.

금수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몇 번이나 지나는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모두 타고 다니고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어떤 사람들은 무척 잘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들 게 없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

조간신문 일면에 경제가 어땡고 저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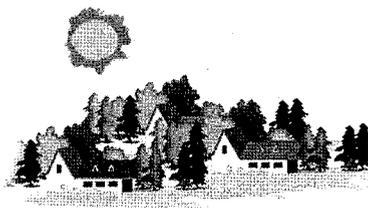
화살표와 숫자가 붉으락푸르락하는데

신문 볼 돈도 없는 집들에서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만 한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해는 줄창 달동네를 비추지만  
고개숙이고 땀흘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인가 보다.  
달동네가 해동네가 아닌 건.



##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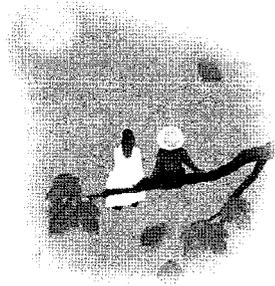
이카루스의 미궁탈출의 꿈은  
거대하고 강렬한 태양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죽음으로 추락한 이카루스는  
결국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쓸쓸한 명언만을 남겨 놓았을뿐.

하루에도 몇 대씩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이카루스를 떠올린다.

단지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일 텐데.

자유를 얻는 데에  
밀랍은 너무 값싼 대가였을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리라는  
태양의 엄한 경고였을까.



나는  
그래도 한번  
이카루스가 되어 보고 싶다.

자유를 꿈꾼다.  
태양 끝까지 다다르는 비상을.

## 기원

묶여 있는 것들은 모두  
바람의 뒤를 쫓아 흔들거린다.  
흔들흔들하다 체념하고,  
또,  
흔들흔들하다 몸부림친다.

속박을 경험하지 못한 바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다.

바람이란 높은

그래 왔던 것처럼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

속박을 경험한 것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바람이란 높처럼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며

바람을 쫓아가다가

-특,

제자리로 돌아온다.

한 갈래 혹은 열 갈래

발목을 잡은 끈에 끌리운다.

그러나

그러나,

또다른 바람이 올 때

그것들은 다시 바람을 쫓는다.



## 나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살기좋은 우리 나라에는

피가 푹푹 떨어지는 싱싱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 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허나,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피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아,

계다가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군요.

태양이 정확히 남중하는 때쯤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쩌면

저기 칼을 차고 서성이는 방해꾼도

눈부신 태양에 쫓겨서 멀리 사라질테니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삽니다.

# 껌 씹는데 한 장 씹

‘쭈욱’

씹다 빨은 점 같은 껌

입에 방문했다가  
키가 작아져 왔다.

그 큰 휴지 한 장에  
작은 점 하나 던져놓고  
휴지통에게 많은 휴지를 던져준다.

‘쭈욱’

우유 한 방울에 한 장 씹

‘쭈욱’

모르고 뽑은 휴지



또 휴지통에게 준다.

지구의 모든 휴지통이  
요즘 밥걱정 없다.

‘쭈욱’

‘쭈욱’

‘쭈욱’

휴지가 뿜히고 뿜힐 때  
휴지통은 짹 차 간다.

휴지통처럼  
지구도 언젠가  
짹 차서 비울 날이 오겠지.

## 도시가 싫은 별

“콜록 콜록”  
매연의 바다 도시.

별을 기다리던 아이들  
기다리다 지쳐 갈 때

별이 고개를 내민다.  
하지만 금세  
별은 온데 간데 없고  
얼굴을 찡그리며  
걸어가는 별 하나의 뒷모습이 보인다.



몰래몰래  
별들의 말을 들어보니  
온통 도시 공기 이야기.

별들도 역시 도시의 공기를 싫어 하나 보다.  
오늘도 시골로 향하는 많은 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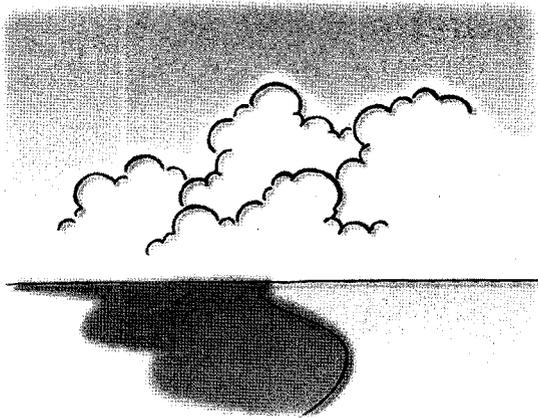
## 색깔이 변한 바다

색깔이 변하는 바다.  
오 년 전에 깨끗했던 바다.  
지금은 색깔이 많이 변한 바다.

오 년 전 하늘처럼 맑던 바다.  
물고기도 숨바꼭질하던 바다.  
수영을 하던 바다.

지금 물고기 하나 안 보이는 바다.  
수영하는 사람도 없는 바다.  
개가 어슬렁거리고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바다.  
나와 친구였던 바다.  
이제 내가 친구를 위해 도와줄 시간.



## 붉은 해

지금은 신새벽  
차디찬 안개 속 바다위에 마음대로 뿌려놓은 빨간 물감 같은 햇  
무리  
단지 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해를 위해 사라져야 할 햇무  
리가 당당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운 아침이 오지 않아 더 기다려지는 시뻘건 불덩이 같은 해  
머리가 보일락 말락 햇무리에 뒤덮여 나오질 못하는 해가 말없  
이 숨어있다.  
  
손목시계가 멈추었다.  
더 이상 아침을 불러올 수 없는 나의 시계.  
다가올 자유의 아침을 묵마르게 기다리는 나의 눈에 자유의 해  
는 보이질 않고  
날카로운 고드름 같은 공기 속으로 구속의 햇무리만이

어지러이 풀어져 있는 붉은 털실처럼 축 늘어져있다.

내 손목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고 싶다.

## 도시의 시간

비릿한 붉은 빛이 온 도시를 잠재우고  
청명한 푸른 빛이 온 도시를 일으키고  
어두운 검은 빛이 온 도시를 파괴하고  
순결한 하얀 빛이 온 도시를 살려낸다.

거룩한 울부짓음이 도시의 허공을 맴돌고  
붉은 총칼에 도시는 목소리를 잃는다.

오뉴월 도시는 부정한 무리에 반(反)하고  
하늘의 외면에 도시는 힘을 잃는다.

차가운 핑음과 비린내 나는 세월을 헤치고  
자유를 향해 도시가 술렁거린다.

해맑은 노란 빛의 종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질 즈음  
도시의 시계는 다시 움직인다.

## 파란 비둘기

허리가 잘린 채 반 백년을 살아온 호랑이의  
숨 가쁜 울음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대지의 불투명한 잿빛 숨결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코를 찌르며 역류하는 시커먼 강에서 평화의 새  
비둘기는 몸부림친다.

누렇게 익은 금빛 가을들판에서  
살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가을바람을 온 몸 가득 맞으며  
마음 놓고 세상을 호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 속에서  
우리 역사 속 사라진 비둘기는 언제쯤 다시 돌아오려나.  
돌아와서 언제쯤 우리에게 파란 꿈 파란 노래 들려주려나.

## 반(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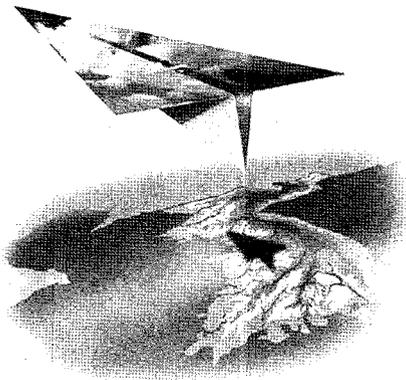
우리는 피 묻은 강산을 철조망으로 가르고  
총칼 앞세워 반세기를 보내었네.  
우리는 북녘의 최남단, 남녘의 최북단에서

비좁은 철조망 구멍사이로 목소리만 애가 타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외침으로  
안타까운 둘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될 것이네.

우리는 지금 하나가 아니고서는 힘이 모자라  
조선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있고  
징그러운 벌레에게 무궁화의 영롱한 빛을 빼앗길 위험에 있네.

한반도.

이 작은 호랑이의 품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나  
우리는 오대양 육대주 넓은 별관을 향하여 기지개를 켜야 하네.



## 바느질

어머니는  
오늘도 바느질을 하신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여린 빛 뿜어내는 나를 두고,  
늙은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신다

골무도 없는  
하얀 맨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꽃바늘에  
실줄대신 핏줄을  
꿰어 넣는 정성스런 작업

동강이 처진



두개의 천 쪼가리를

이어야 한다

'이 놈의 바느질은 언제야 끝날꼬...'

침예한 칼날이

스치고 간 천을 맞대며,

어머니는 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친다

당신이 가고나면

아이가 해야 할 바느질..

어머니와 아이는

오늘도 바느질을 한다

## 41년간의 항쟁 그리고...

오늘의 나는

마흔 하나이오

민주의 빛을 갈망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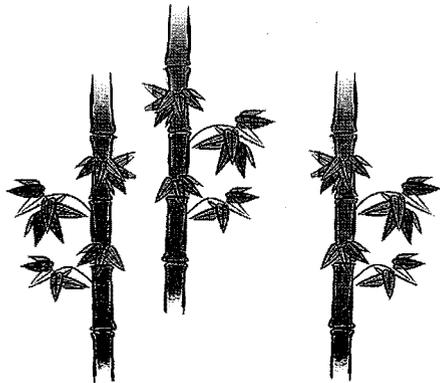
한 떨기 슬픈 꽃이오  
거한 폭풍우 같은  
탱크가 짓밟아도  
나는야 담쟁이 덩굴,  
길고 질긴 나의 근성이오

독재의 그늘 아래서  
흥건히 배어 나는  
진득한 피는  
붉은 진달래로 피워낼까나

짙어가는 울분 속에  
자유라는 꿈을 위해  
곶은 대나무 수액을 마셔온  
나는 굴복을 모르오

날카로운 빗줄기가  
나의 줄기를 꺾더라도  
날아온 돌멩이에  
봉오리가 터져 나가도

토해낸 핏덩이 속에  
움작거리는,



나의 씨앗을 조심스레  
심어주시오

## 댕그랑 댕그랑

하늘과 가까운 곳에  
맞닿은 달동네,  
고가 아파트단지 뒤에  
가리워진 허름한 판자 지붕  
댕그랑!

아파도 병원은 못갑니다  
제가 꾸 꿈은  
코리아 드림이거든요  
댕그랑! 댕그랑!

낮 동안의 길거리에  
상품을 보여주던 쇼윈도우  
밤이 되면,  
돈 버는 소녀를 전시한다  
댕그랑! 댕그랑! 댕그랑!

추위가 엄습한 어느 초겨울 밤  
벤치서 쓸쓸히 잠든 저 늙은이,  
떨어지던 낙엽이 그의 생을 쓸어간다  
땡그랑..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땡그랑 소리, 깨지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라  
가없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를 주워 담으라



